‘5월의 노래’ 불렀던 그 사람 지금…

‘바윗돌’ 정오차

국민銀 서울지점 근무 불우이웃 콘서트 진행

‘님을 위한 행진곡’ 김종률

소니 비엠지 뮤직 대표 5·18 뮤지컬 제작 준비

‘광주 출정가’ 정세현

출가해 범능 스님 변신 포교 하며 음반도 발표

5·18 이듬해인 1981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었던 정오차(50)의 ‘바윗돌’은 곧바로 방송 금지곡으로 묶였다. 한 인터뷰에서 “5·18 때 죽어간 친구들을 추모하며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밝힌 게 발단이었다. 광주일고 졸업후 한양대 경영학과에 재학중이던 정 씨는 1980년 꽃같은 목숨을 잃었던 ‘친구들’을 노래로 위로했었다.

‘5월 광주’를 기억케 하는 노래들이 있다.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대학가요제 출전을 준비하던 정 씨는 어떤 노래를 만들까 고민하다 ‘광주의 아픔’을 떠올렸다. 친구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죽어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광주’는 잊혀져 가는 것같았기 때문이다.

“무섭고 암울한 시기였기에 희생자 묘는 방치돼 있었어요. 사람 손을 타지 못해 황폐해진 묘와 비석을 ‘바윗돌’로 형상화했고, 바윗돌이 굴러 굴러 다시 한번 민주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가사를 썼죠.”

‘세상만사 야속타고 주저앉아 있을 쏘냐,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이라는 가사는 그렇게 탄생했다.

‘바윗돌’이 금지곡으로 묶이면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정 씨는 방황하기도 했지만 전공을 살려 은행원이 됐다. 직장 행사 등에서 노래를 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대학가요제 출신들과 ‘7080 대학가요제 입상자 모임’을 결성, 꾸준히 무대에 올랐던 정 씨는 2005년 암 진단을 받고 위 70%를 잘라내야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지난 연말부터는 공연팀에 합류해 다시 무대에 서고 있고, 6월에는 불우이웃돕기 공연도 갖는다.

현재 KB국민은행 디지털밸리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정 씨는 음악의 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팬들이 ‘정오차 팬클럽’(cafe.daum.ner/joc2000)을 만들어 그를 지원해주는 것도 든든한 힘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50·소니비엠지뮤직 대표)씨는 5·18 관련 뮤지컬 제작을 위한 첫 작업으로 음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최근 발매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윤상원씨와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을 기념해 당시 전남대 4학년이었던 김 씨와 문화패들이 황석영씨 집에 모여 만든 노래극 ‘넋풀이’에 담긴 곡이었다. 김 씨가 곡을 만들고 가사는 백기완씨의 시를 바탕으로 황씨 등이 공동창작했다.

MBC 대학가요제에서 ‘소나기’라는 곡으로 은상을 받기도 한 김 씨는 1977년~81년까지 작곡한 100여곡 가운데 12곡을 선별해 이번 음반을 만들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가수 서영은과 성악가들이 불렀고, 김 씨는 ‘바람과 꽃씨’를 노래했다.

“오랫동안 5·18을 음악적으로 한번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5·18을 너무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구요. 뮤지컬은 음악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내놓은 음반을 통해 첫발을 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네요.”

5·18 30주기가 되는 2010년 뮤지컬을 선보일 김 씨는 전문연출가, 극작가 등과 함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국악과 출신으로 노래패 ‘친구’를 결성, ‘광주출정가’와 ‘혁명광주’ ‘꽃아 꽃아’ 등을 만든 작곡가 정세현씨는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지난 1993년 ‘범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덕사에서 출가 후 화순에서 포교활동중인 범능 스님은 꾸준히 음반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택·도종환 등의 글에 가락을 붙여 ‘무소의 뿔처럼’ 등 4장의 음반을 냈고, 최근에는 4번째 명상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발표했다. 원각사에서 열린 5·18 추모행사와 불교계의 자선공연 등 무대에도 꾸준히 서고 있으며 개인홈페이지(www.buleum.pe.kr)를 통해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은·이은미기자 mekim@kwangju.co.kr

목포서 ‘김우진 문학제’

한국 최초의 극작가 … 희곡 ‘난파’ 공연 영상전도

31~6월1일 목포 문학관

한국 최초의 극작가로 알려진 김우진(1897~1926)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한 ‘제1회 김우진 문학제’가 31~6월1일까지 목포 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문학제는 이미란·허흥심씨의 김우진 시 낭송을 시작으로 정대성 동원대 교수가 ‘김우진의 생애와 시세계’를, 민병욱 부산대 교수가 김우진의 ‘비평 담론과 연극비평론의 실제’를, 배봉기 광주대 교수가 ‘김우진 희곡연구’를 주제로 각각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열리는 토론에서는 김선태 목포대 교수, 정철 동신대 교수, 희곡작가 김창일씨가 토론자에 나선다. 1일 오전 11시에는 김우진의 희곡 ‘난파’(연출 백순원) 공연영상전도 준비됐다

김우진은 ‘사의 찬미’의 윤심덕과 현해탄에 투신한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연극에 신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이자 당대 연극계와 문단에 탁월한 이론을 제시한 평론가이기도 하다.

또 1920년 조명희, 홍해성, 고한승, 조춘광 등 유학생과 함께 연극연구단체인 극예술협회를 창립하고 1921년에는 동우회순회연극단을 조직해 국내 순회공연을 열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목포로 귀향해 영농사업체인 상성합명회사를 잠시 운영하기도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창작활동에 몰두, 시(50편), 희곡(5편), 소설(3편), 평론(20편) 등 총 78편의 작품을 남겼다.

한편 목포문학관에는 김우진이 남긴 대부분의 친필 원고와 유품이 전시돼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920년대 일본 와세다대학 시절의 김우진.

명필 도록 ‘글씨의 아름다움’ 발간

순천대학교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관장 남호현)이 조선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명필의 서예작품을 모은 도록인 ‘글씨의 아름다움’을 발간했다.

이 도록에는 조선시대 명인의 글씨 30점을 비롯해 한말 우국지사 작품 31점, 근대 명필 38점, 어필(御筆) 7점 등 106점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돼 있다.

조선시대 명인편에는 백하 윤순의 작품을 비롯하여 표암 강세황, 원교 이광사, 자하 신위, 창암 이삼만 등의 글씨가 실려 있다.

한말 우국지사편에는 이준 홍범식, 한용운, 한규설 등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우국지사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특히 순천 출신인 벽소 이영민의 독특한 글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대 명필편에는 호남 출신의 최규상, 송운회, 허백련, 손재형과 이건필, 정학교, 오세창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으며, 어필편에서는 선조와 정조, 고종, 의친왕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이들 글씨는 고 강운 최승효(1917-1999)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작품들로 순천대 박물관은 지난 2001년부터 ‘강운 최승효 기증문화재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비엔날레 자원봉사자 모집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기간 동안 외국인 통역과 행사장을 관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통역도우미(12명) ▲행사장 종합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8명) ▲일반자원봉사자(140명)로 분야를 나눠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운영 요원은 만 40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6월10일까지.

신청서는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b.or.kr)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20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행사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일제 근무하게 되며, 중식과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또 활동증명서도 발급해 준다. 문의 062-608-42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

스쿨피아싱어즈, 6월 2일 광주문예회관

〈김성국 단장〉

스쿨피아싱어즈(단장 김성국)가 구노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를 무대에 올린다. 6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지난 2004년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던 스쿨피아싱어즈는 이번 공연에서 신동민(남부대 교수)씨가 편곡한 버전을 선보인다.

이우광씨가 이끄는 꼴레기움쳄버오케스트라가 협연하며 소프라노 김은선, 테너 임영빈, 바리톤 황성철씨 등이 찬조출연한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여교사와 예비 교사로 구성된 스쿨피아싱어즈는 매년 2차례의 무대에 서는 등 지금까지 모두 15번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